

제8회 대구사진비엔날레 특별전시

2021, 18 Worldviews- "신념 CONVICTION"

특별전시는 사진이 현실을 잘 전달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동시대에 관한 다양한 기록, 해석, 전망의 장을 마련한다. 이 다큐멘터리 전시에서 무엇보다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탐구(exploration)이다. 정치·사회(파트1), 경제·노동(파트2), 인간·종교(파트3), 기후위기·환경오염(파트4)에 관한 연구라고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11개국 18명 사진가의 사회를 향한 신념이 작품으로 표현되고 그 작품과 시민이 지향하는 신념이 동조(synchro)되는 순간을 확인하고자 한다.

The 8th Daegu Photo Biennale Special Exhibition

2021, 18 Worldviews: "CONVICTION"

: The Special Exhibition was designed to be a place for displaying diverse records, interpretations, and prospects related to the 21st century. Above all else, this exhibition focuses on social exploration. It can also be viewed as a "study" on the politics·society(part1), economy·labor(part2), people·religion(part3), climate crisis·pollution of the environment(part4).

큐레이터

이기명 Ki-Myoung Lee

앨리슨 몰리 Alison Morley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전경배 KyungBae Jeon

<이기명 큐레이터 글>

특별전시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곳에서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 봉착했는지에 대한 시각적 진술을 제공하는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진은 다큐멘터리 사진으로 사회 제 현상의 패턴을 정의하고 원인을 설명하여보다 깊은 동시대의 중요한 기록을 제공한다.

다큐멘터리 사진이 다양한 사진의 장르 가운데 삶에 어떤 힘을 건널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 그 사진가가 지금까지 사진가로서 삶을 감내해낸 힘 때문일 것이다. 다큐멘터리 사진가라면 우리 시대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다양한 관심을 타인과 소통하고 그것으로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해 나가고자 하는 '신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들은 지구상 어디서라도 그들의 신념을 명징한 이미지로 펼쳐 보이는 대단한 사상을 가진 우리 시대의 파수꾼들이다.

이 전시는 사진가의 고립된 개인의 내면적 진실이나 관념의 유희적 표현보다 이웃과 세상에 대한 현실 인식의 작품이다. 전시장에서 사진가의 개별적 신념이 반영된 작품이 시민의 보편적 신념과 공감을 이루어 동조되는 찰나를 목도하고 싶다.

<Curator Lee, Ki-Myoung>

The Special Exhibition hopes to provide important records of the times in which we live by defining and explaining the causes of patterns of contemporary social phenomena.

This exhibition wants to bring attention to works that reflect an awareness of one's reality and community rather than the internal, isolated truth of the photographer or playful expressions of ideas. Photographic works of the former category induce viewers to empathize with the lives and philosophies of the ordinary people they depict.

The Daegu Photo Biennale aims to feature works that express photographers' convictions about our global society and synchronize the beliefs presented in these works with the personal beliefs of citizens.

<앨리슨 몰리 큐레이터 글>

특별전시에서 관객은 각 작가가 사진에 담은 대상의 본질을 감상하면서 점차 작가의 시점으로 세상을 해체하여 바라보게 된다.

사진작가는 이미지야말로 최고의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특별전시의 사진가들은 세상을 꿰뚫는 통찰력을 가진 작품을 전시하는데, 관객은 각 작가가 사진에 담은 대상의 본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눈을 통해 세상을 해체하여 바라본다. 이미지를 통해 현실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사진가들은 격렬한 작품들로부터 선별된 이미지의 흐름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선택한 다양한 각도, 빛, 그림자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드러낸다. 이러한 여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대상을 더 가까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각 작가의 관점이 얼마나 자주적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작가들은 보이는 것을 고무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기록함으로써 사물이 우리의 사회, 환경, 인간성 안에서 변화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신념을 갖는다.

전 세계에서 엄선된 작가들은 타인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다. 때때로 달의 반대편을 탐험하는 것만큼이나 생소하게 보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기울인 노력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에 달려 있다.

<Curator Alison Morley>

Through the eyes of each photographer in this exhibition, the world is disassembled for the viewer to appraise the nature of each artist's objective.

A photographer's belief is that he or she can best communicate reality through imagery. The photographers in this exhibition are clearly making a stance by the sequence of imagery that they have culled together from fierce bodies of work. The form reveals the content with each angle, light, or shadow that each artist selects to impress the facts from where they are standing. It is our faith in the journey that allows us to see how independently each artist's view brings us closer to a subject than we might ever have seen previously. It is their conviction in the work that impresses on us the belief that somehow things can change in our society, our environment, our humanity by documenting what is seen in new and inspiring ways.

Regardless of the subject, these photographers chosen from around the world are persuasive and it relies on our senses to value the commitment they have made in their lives to bring us what may seem at times like strange expeditions to the other side of the moon.

Part1 : Political·Social

참여작가: Sarah Blesener, Stephanie Keith, Alex Majoli, Paolo Pellegrin, Ivor Prickett

Part2 : Economy·Labor

참여작가: Jonas Bendiksen, Nanna Heitmann, HaiFeng Qian, WoongJae Shin,
KyungHoon Kim

Part3 : History·Religion

참여작가: João Pina, JaeGab Lee, Phyllis B. Dooney, Chanho Park, Newsha Tavakolian

Part4 : Climate Crisis·Environmental Pollution

참여작가: Esther Horvath, Matthew Abbott, Yuki Iwanami